

차별을 싹싹 쓸어내는 청소노동자 파업

생활임금 쟁취!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부터!

서울대병원에는 15년 이상을 유령처럼 일 해온 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못 벗어나는 비정규직 청산,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7/31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소속의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한 끼 식사도 하게 되었고, 주1회 휴무도 갖게 되었고, 휴게실에 선풍기도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수당 없는 최저임금 강요와 열악한 처우 등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병원의 유령이 아닌, 이제 병원 노동자 주체로 당당히 서고자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들레조합원들의 파업은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출발입니다. 함께합시다!

생활임금쟁취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노동자·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차별을 싹싹 쓸어내는

비정규직 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7월 31일(화) 낮 12시부터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민들레조합원은 모두
본관 1층 로비로 집결해주시요.

오늘은 우리들이 유령이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주체임을 당당히
보여줍시다!

2008년 청소노동자 민들레분회 노동조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비밀리에 노조에 가입하고 있던 걸 늦게 알았다. 2008년 노동조합 결성 당시, 하청업체가 노조에 가입하면 잘랐기 때문에 노조가입하고도 숨죽여 지냈다. 지금은 입사 당일 가입하고, 노조가입 했다고 알린다. 당시엔 쉬는 시간에 일을 시켜도 그냥 했다. 지금은 당당히 쉰다. 엄청 무시당하며 지냈는데 노조 가입하고 존중 받게 되었다”

“하청업체 반장의 ‘갑질’이 심했다. 출퇴근 체크하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하고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반장이 ‘너희들 나한테 당해봐라, 앞으로 쉬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앉아있지도 말고 일만해라’고 했다. 이 소식들 듣고 노조에서 물려와 항의해주었다. 그러자 하청 이사가 사과했고, 반장을 바꿨다”

“집에서 엄마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고, 감독한테 조퇴를 신청했는데, ‘내가 조퇴를 시켜줘도, 니가 갔다 올 때까지 니네 엄마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할래?’ 라며 조퇴를 안시켜줬다. 동료가 계단에서 굴러 얼굴이 많이 다친 적도 있었다.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다쳐 조퇴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안시켜줬다. 안되겠다 싶어 돈 20만원을 감독한테 찔러줬다. 그랬더니 얼른가라고 조퇴를 시켜줬다. 이런 게 계기가 되어 민들레(노동조합)를 만들었다”

<민들레 조합원 인터뷰 중에서>

7월 31일(월) 파업 일정	12:40~13:00	식사 후 본관 로비 집결
	13:00~14:00	파업 출정식
	14:00~14:40	‘생활임금 쟁취 및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14:40~15:00	시계탑으로 이동
	15:00~16:00	민들레분회 자체 투쟁



<조합원 파업행동 지침>

1. 민들레분회 조합원은 단체복을 입고 전일 파업일정에 참여한다.
2. 원청 및 하청업체 관리자가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시 노동조합으로 즉시 신고한다.(노동부 신고)
3. 파업지도부 이외의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
4. 민들레분회 모든 조합원들은 파업내용을 적극 알린다.